

## 《老乞大》가 반영하는 漢語의 성격에 대하여 \*

愼 鏞 權 \*\*

## &lt;目 次&gt;

- |                          |                        |
|--------------------------|------------------------|
| I. 머리말                   | III. 《老乞大》에 나타난 漢語의 성격 |
| II. 《老乞大》에 나타난<br>방언적 요소 | 1. 漢兒言語                |
| 1. 音韻                    | 2. 北方方言                |
| 2. 語彙                    | 3. 近代漢語                |
| 3. 語法                    | 4. 口語                  |
|                          | IV. 맺음말                |

## I. 머리말

《老乞大》는 高麗末부터 朝鮮時代에 이르는 시기동안 漢語 학습을 위해 쓰인 교재이다. 《老乞大》와 그 諺解書들은 漢語史 연구의 중요 자료로 연구자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부언하여 설명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느껴질 정도인데, 이 문헌들은 다른 문헌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료적 가치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다른 文語的인 문헌들과는 달리 생생하면서도 현실적인 언어 자료들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여러 차례 간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漢語史 연구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가치 있는 자료라는 것이다.

본고는 《老乞大》가 반영하는 漢語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이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06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조교수

문헌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자료적 가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1)</sup> 각 문헌에 나타난 언어를 연구할 때 가장 어려움이 있으면서 그 문헌이 반영하고 있는 언어 현상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선행된 후에야 비로소 고찰이 가능한 것이 그 문헌이 기초하는 방언 배경과 반영하는 언어의 성격을 규명하는 문제이다. 특히 《老乞大》와 같이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문헌에 반영된 언어의 성격을 밝히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심층적이고 다각도로 접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전의 연구에서 《老乞大》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행하여졌으나 그 반영하는 漢語의 성격을 규명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은 이러한 어려움을 보여 주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老乞大》에 대한 연구에 있어 부진한 부분인 반영하는 漢語의 성격 규명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본고에서는 음운, 어휘 및 語法 현상 등을 함께 참고하여 《老乞大》가 기초하는 방언 배경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며 또한 방언 배경 이외에도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老乞大》가 반영하는 漢語의 성격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본고에서 사용하는 《老乞大》와 그 諺解書의 刊本을 시대 순서에 따라 배열하면 다음과 같고 화살표 우측에 있는 명칭은 이 刊本들에 대하여 본고에서 사용하는 약호이다.

1. 《舊刊老乞大》(14세기) → 《舊老》
2. 《翻譯老乞大》(1517年以前) → 《翻譯老》
3. 《老乞大諺解》(1670年) → 《老諺》
4. 《老乞大諺解》(平安監營重刊本)(1745年序) → 《平安》
5. 《老乞大新釋》(1761年序) → 《老新》
6. 《老乞大新釋諺解》(1763年) → 《老新諺》
7. 《重刊老乞大諺解》(1795年以後) → 《重老》

## II. 《老乞大》에 나타난 방언적 요소

《老乞大》에 나타난 언어 현상에서 방언적 요소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본절에서는 음운, 어휘 및 語法 현상의 측면에서 《老乞大》와 그 諺解書의 방언 배경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音韻

老乞大諺解書의 체제는 구절 단위로 漢語의 原文을 먼저 쓰고 그 아래에 두 줄로 된 諺解文을 붙이며 둘 사이의 경계는 圈標로 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漢語文의 각 漢字 밑에는 한글로 左右에 漢語音을 표시하였고 이러한 체제는 이후에 간행된 《老乞大》와 《朴通事》의 諺解書들에서도 그대로 답습된다. 漢語文의 각 한자 밑에 한글로 左右에 전사해 놓은 漢語音表記는 왼쪽이 漢語規範音인 正音, 오른쪽이 漢語現實音인 俗音으로 나란히 正俗音이라 불렀던 것인데, 이 중 우측음은 老乞大諺解書가 편찬되던 당시의 北方漢語音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로 우측음에 나타난 漢語音의 특징을 위주로 방언적 특색을 고찰해보도록 하겠다.<sup>2)</sup>

2) 본고에서는 老乞大諺解書에 나타난 左右音 중 기본적으로 우측음에 반영된 방언적 특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이는 좌측음에 방언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좌측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通攷所制之字”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졸고(2004)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飜老》 좌측음은 《四聲通攷》 俗音에 편찬자의 改正音이 더해진 것으로 일정한 수준의 독자적 가치가 있으나 좌측음이 자료적 가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通攷所制之字”인 이상 그 가치의 많은 부분이 《四聲通攷》로 돌려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飜老》의 좌측음은 《飜老》의 일부이나 이 문헌의 방언적 배경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로는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만 좌측음 중 《飜老》 저자의 改正音과 濁音, 聲調 등 주요 현상은 《飜老》의 방언적 배경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으나 단순하지 않은 문제여서 현재의 단계에서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이후 刊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老乞大諺解書의 漢語音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老乞大諺解書로서는 최초의 刊本人인 《翻老》(1517 이전)에 나타난 漢語音을 논의 대상으로 해야 하며 다음으로는 이후의 刊本에서 변화된 부분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翻老》에 나타난 漢語音, 특히 우측음의 대체적인 모습은 15세기 이후의 北方漢語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中古音의 전체적인 모습과 비교할 때 聲母, 韻母의 簡化, 入聲韻尾의 소실, 鼻音韻尾의 簡化( $m > n$ ), 濁音清化와 그에 따른 聲調 변화 등을 반영하고 있는 《翻老》 우측음의 音系는 《中原音韻》(1324) 이후의 北方漢語音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고 이미 現代 中國 北方方言의 모습과도 근접해 있다.<sup>3)</sup> 이러한 《翻老》 우측음의 모습은 中國現代方言의 大方言區를 기준으로 할 때 北方方言 이외의 다른 方言의 音韻史를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현재의 단계에서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翻老》가 간행된 지 150여년 이후에 간행된 《老諺》(1670)의 우측음은 《翻老》와 비교해 볼 때 微母字의 완전한 소실, 일부 日母字의 兒化(兒, 二, 耳, 餌)를 제외하고는 음운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18세기에 간행된 老乞大諺解書 중에서는 《平安》(1745序)의 우측음은 《老諺》과 기본적으로 일치하여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老新諺》(1763)과 《重老》(1795 이후)에서는 우측음에서 많은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聲母에 있어서는 일부 字에서 나타난 見母系의 구개음화가 가장 주목할만하며 이외에도 日母字와 捲舌音字에서의 변화도 나타난다. 韻母에서의 변화는 더욱 다양한데 撮口呼에서의 변화( $iu > y$ ), 山攝系 韻母의 변화, 中古 果攝 合口 喉牙音系와 中古 宕江兩攝의 入聲 一等字에서 발생한 예외적 변화 및 일부 韻母 표기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3) 《翻老》 우측음의 音系는 《中原音韻》의 音系와 비교해 보아도 상당히 유사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寧繼福(1985)에서는 《中原音韻》의 音系를 聲母 21, 韻母 46, 聲調 4로 귀납하고 있는데 이는 《翻老》 우측음의 音系와 유사하다.

《翻老》 우측음의 音系와 이후의 刊本에 나타난 음운 변화 상황을 고려해 보면 老乞大諺解書가 반영하는 것은 北方漢語音인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과연 北方漢語의 어떤 하위 방언을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한 희미한 단서를 던져 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음운 현상 및 변화와 漢語音 표기가 있다.

聲母에서는 구개음화와 日母字에서 나타난 변화가 있다. 《老新諺》과 《重老》에서는 우측음에서 구개음화를 보여 주고 있는데 각 韻母 구조에서 구개음화가 나타난 字는 다음과 같다.<sup>4)</sup>

- i (지) 幾 既 計 鷄 飢 急 記 給 饑 稽 忌  
(치) 起 氣 騎 器 欺 棋 豈  
(시) 喜
- ia (자) 家 嘉 傢
- iau (잔) 敎 較 攪 叫 覺  
(찬) 橋
- ie (저) 挈
- iou (쥬) 舊  
(쥬) 求
- y (취) 去 衢  
(쉬) 許 虛
- ye (꺠) 厥(?)
- iŋ (징) 京 粳 荊 鏡
- iaŋ (장) 講 江 薑  
(창) 强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老新諺》과 《重老》에 반영된 구개음화는 韻母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ŋ 韻尾에서는 일부 字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고 있는 반면 -n 韻尾에서는 단 한 字도 구개음화가 일

4) 《老新諺》과 《重老》 및 《朴通事新釋諺解》(1765)에 나타난 구개음화가 일어난 字와 일어나지 않은 字의 목록에 대해서는 졸고(2003a: 234-235) 참고.

어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가장 주목할만하고 -i나 -iau 등의 韻母 구조에서는 비교적 구개음화가 잘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들 문헌에 반영된 見母系의 구개음화는 近代北方漢語에서 나타난 구개음화의 진행 과정을 보여 주는 음운 변화의 과정이나 이러한 구개음화의 진행 상황이 각 방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방언 배경을 살펴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王力(1980)에 의하면 現代漢語方言에서 見系와 精系의 구개음화는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sup>5)</sup>

- ① 北京方言처럼 見系와 精系에서 모두 구개음화가 발생하여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
- ② 吳方言처럼 見系에서는 구개음화가 발생하였으나 精系는 여전히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③ 膠東半島의 方言처럼 見系와 精系에서 모두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아 구분이 되는 경우

《老新諺》과 《重老》에 반영된 구개음화는 표기상으로는 ① 또는 ②의 양상 중 하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도의 분류로는 이들 문헌이 기초하는 하위방언을 알 수 없다. 遠藤光曉(1993)에서는 이 문헌들과 現代漢語方言 중의 類似現象으로 山東省 膠東方言에 속하는 榮成方言과 山東省 南部에 인접한 贛榆, 靑口의 方言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 方言들에 나타나는 현상은 구개음화의 정도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으나 이들 문헌에 반영된 현상과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遠藤光曉(1993)에는 北京語의 -n은 구개음화되어 있는데 이들 문헌이 의거하고 있는 方言도 유사한 상황이었다면 역행동화에 의해 牙音

5) 近代漢語에 나타난 구개음화 현상이란 당시의 漢語 聲母 “[ts], [ts’], [s]” 부류와 “[k], [k’], [h]” 부류가 [i]나 [y] 앞에서 구개음화하여 모두 “[tɕ], [tɕ’], [c]”로 변한 관계로 두 부류의 자들이 구분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현상은 또한 精系字를 “尖字”라 하고 見系字를 “團字”라 하여 소위 “尖團不分”이라고도 하는데 《老新諺》과 《重老》의 우측음에서는 전사상의 문제로 精系의 구개음화를 확인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줄고(1994) 참고.

의 구개음화가 抑止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日本의 지명한 음운학자인 平山久雄의 언급도 인용되어 있어 역시 老乞大諺解書에 반영된 구개음화가 北方方言의 音韻史를 반영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본고는 이 구개음화 현상이 北方의 어떤 하위방언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직까지 現代漢語方言에서 확실한 단서를 찾지 못하였는데, 다만 《老乞大》에 나타난 旅路나 당시 漢語音을 質正하기 위하여 방문했던 지역 등을 고려하고 山東 지역의 方言이 특히 파찰음 계열의 聲母가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구개음화의 양상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지역 方言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sup>6)</sup> 따라서 山東方言 등 관련 가능성이 있는 하위방언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고도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日母字는 《老新諺》과 《重老》에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표기 상황에 근거하면 아래와 같은 4부류로 나눌 수 있다.

① 日母를 보존한 경우

예) 如, 日, 若, 染, 熱, 入, 擾, 軟, 絨, 辱, 壬, 潤

② 中古 日母를 소실한 경우

예) 人, 然, 認, 惹

③ 中古 日母의 소실과 兒化(rü > r)

예) 兒, 二, 耳

6) 山東方言은 크게 보면 東區와 西區의 方言으로 나눌 수 있는데, 朴炯春(2001: 5)에 따르면 東區方言에서는 壽光, 濰縣, 濰坊, 臨朐, 益都, 蒙陰 6곳을 제외하고 尖團音이 구분되고 있으며 西區方言에서도 尖團音이 구분되는 지역과 구분되지 않는 지역이 혼재되어 있다. 朴炯春(2001: 25-27)에서는 山東方言에서의 尖團音의 讀法에 대하여 표로 제시해주고 있다. 필자도 2003년 1월과 2004년 7월에 山東 東區方言에 속하는 萊州, 萊陽의 方言과 煙台, 威海, 青島 方言의 다수 제보자를 대상으로 《重老》에 나타난 尖團音과 日母字의 讀法을 조사하였다. 체계적인 조사는 아니었지만 이 조사를 통하여 山東 東區方言에서는 많은 지역에서 아직 尖團音이 구분되고 있으며 日母字가 零聲母로 읽히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다. 또한 山東 지역의 方言에서는 특히 파찰음 계열의 聲母가 매우 발달되어 있어 3종류 또는 4종류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青島方言의 경우 “ts, ts’ / tɕ, tɕ’ / tɕ, tɕ’ / tɕ, tɕ’”의 4종류의 파찰음 계열을 보여 주고 있다.

④ 日母의 r음화  
예) 肉

위에서 ①, ③, ④는 北方漢語의 音韻史에서 나타난 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②의 中古 日母를 소실한 경우의 例字들은 現代 北京音에서 여전히 日母가 남아 있는 字들이어서 이는 北方漢語 音韻史의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없고 특정 방언의 특성이나 또는 제보자의 개인어(idiolect)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董同龢(1968: 154-155)에서는 日母字의 現代方言에서의 讀法에 대해 6가지로 나누어 놓고 있는데 이 중 廣州方言에서 日母字가 모두 零聲母로 나타나고 있다.<sup>7)</sup>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老新諺》과 《重老》의 전체 音系를 고려해 볼 때 南方語를 반영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 두 문헌에서 나타난 中古 日母의 소실을 보여 주는 例字는 소수이기 때문에 이를 南方語의 반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18세기 당시 北方方言에서 日母字 聲母가 소실된 하위방언이 있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北方方言의 하위방언 중에서는 山東 지역 방언 특히 膠東半島 일대의 榮成, 煙台, 靑島 등 東區方言에서 中古 日母字 聲母가 零聲母로 읽히는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위에서 ② 유형의 例字로 제시한 “人, 然” 등은 일부 山東方言에서 日母가 소실된 대표적인 字들이어서 이들 문헌의 漢語를 質正한 제보자가 山東方言의 기반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예이다.<sup>8)</sup>

韻母에서 나타난 撮口呼에서의 변화(iu > y), 山攝系 韻母의 변화, 中古 果攝 合口 喉牙音系와 中古 宕江兩攝의 入聲 一等字에서 발생한 예외적 변화 등은 北方方言 音韻史의 과정으로 특정 방언의 영향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老新諺》과 《重老》 중 일부 字에서 나타난 韻母 표기에서의

7) 漢語方音字匯(1989, 第二版)에서도 日母字는 南方方言인 廣州語와 梅縣語에서 현저히 약화되었거나 零聲母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8) 朴炯春(2001:5)에서는 中古 日母字의 讀法이 山東方言에서 크게 나누어 “零聲母, z, l, z, ʃ”의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한다. 이 중 榮成方言 등 東區方言에서 中古 日母字가 零聲母로 읽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변화는 면밀히 고찰해 볼 여지가 있다.

《老新諺》과 《重老》에 나타난 “街”의 우측음은 주목을 끄는데, 이전의 刊本에서는 “계”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들 두 문헌에서는 “개”로 바뀌어 있다. “街解界皆鞋”字 부류와 “茄結姐且寫”字 부류의 韻母는 現代北京方言에서 모두 “ie”로 구분되고 있지 않지만 그 기원과 변화 과정은 서로 다르고 《老新諺》과 《重老》 우측음에 나타난 표기도 “꺀”와 “꺃”로 구분된다. 이 두 부류 字들사이의 讀法 차이는 北方方言의 하위방언 구분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 鵜殿倫次(1985: 172)에서는 아래와 같이 漢口方言과 山東 지역 각 方言에서의 讀法을 제시하고 있다.

|   | 漢口   | 薛城    | 濟南    | 煙台   | 榮成   |
|---|------|-------|-------|------|------|
| 街 | kai  | tciai | tciaɐ | ciaɐ | cie  |
| 姐 | tcie | tcjɿ  | tcie  | tcie | tsie |

두 문헌의 우측음에서 두 부류의 字가 구분되고 “街”가 “개”로 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漢口方言과 가장 가까우나 두 문헌이 西南官話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비록 “街”가 “개”로 표기된 상황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두 부류가 구분되는 山東 南部의 薛城 方言과 膠東方言에 속하는 煙台方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中古 知莊章系 聲母는 現代北京方言에서 권설음으로 합류하여 구분되지 않는데 老乞大諺解書의 우측음에서도 기본적으로 표기를 통해 구분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권설음과 관련된 표기에서 《老新諺》과 《重老》의 우측음에서는 일부 字들에서 주목할만한 변화가 보이는데 아래와 같은 예가 있다.

|       |                  |
|-------|------------------|
| 즈 → 지 | 예) 枝             |
| 스 → 시 | 예) 是, 詩, 施, 市, 使 |

司譯院의 전통적인 漢語音 표기에서는 韻母 환경의 변화를 통해 권설음화를 나타내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어 “支 時”는 《四聲通解》의 正音에서 “지, 씨”, 俗音에서 “즈, 쑤”, 《韻老》의 우측음에서 “즈, 스”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正音에서 舌葉音의 상태에 있던 것이 俗音과 《韻老》의 우측음에서 권설음화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捲舌音化가 北方漢語에서 폭넓게 발생하던 시기에 간행된 老乞大諺解書의 시대에 따른 刊本을 통해 나타나는 捲舌音字의 표기에는 변화가 없어서 이들 문헌의 편찬자들이 韻母 환경의 변화를 통해 捲舌音化를 나타내려고 했는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sup>9)</sup> 그런데 위의 예는 知莊章系 聲母가 구분되는 특정 방언의 영향이 관여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흥미를 끈다. 鵝殿倫次(1985:172)에서는 山東 지역 方言 중 膠東方言에서 知莊章系 聲母의 대립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서 榮成方言과 煙台方言에서의 讀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 字(精) | 事(莊) | 之(章) | 制(章) | 擠(精) | 知(知) | 日(日) | 基(見) |
|----|------|------|------|------|------|------|------|------|
| 榮成 | tsɿ  | sɿ   | tʂɿ  | tʂɿ  | tsɿ  | tʂɿ  | i    | ci   |
| 煙台 |      | sɿ   | tsɿ  | tɕi  | tɕi  | tɕi  | i    | ci   |

《老新諺》과 《重老》 우측음의 일부 捲舌音字에서 나타난 표기의 변화는 膠東方言의 양상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나 이전의 刊本에서 구분되지 않던 字들이 이 두 문헌에서는 표기상 구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방언의 양상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老乞大諺解書에 나타난 漢語音 특히 현실음인 우측음을 살펴볼 때 최초의 刊本인 《韻老》부터 최후의 刊本인 《重老》까지 음운적인 측면에서 모두 北方方言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9) 捲舌音化가 北方漢語에서 발생한 시기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韻老》가 편찬된 16세기 초반에는 北方漢語에서 捲舌音化가 폭넓게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졸고(1994: 41-46) 참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老乞大諺解書가 반영하는 것이 北方方言 중 어느 하위 방언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하기 어려운데, 다만 18세기 刊本인 《老新諺》과 《重老》에 반영된 음운 현상들 중에서 일부 日母字가 零聲母로 나타나고 있는 양상 등 몇 가지 현상들은 北方方言 중 山東方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독특한 현상이어서 흥미를 끈다. 따라서 老乞大諺解書에 나타난 漢語音은 전체적으로는 北京을 중심으로 하는 北方 지역에서 행해진 官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18세기의 刊本인 《老新諺》과 《重老》에 반영된 일부 음운 현상들을 고려해 볼 때 이들 문헌의 편찬 당시 조사 대상이 되었던 제보자가 山東 지역의 방언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인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 있다.<sup>10)</sup>

## 2. 語彙

특정 문헌에 나타난 어휘는 그 문헌의 방언적인 배경을 보여 주는 중요한 예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은데 《老乞大》에도 방언적인 특색을 보여주는 어휘를 살펴볼 수 있다.<sup>11)</sup> 그러나 어휘의 경우에도 문헌에 나타난 일부 어휘들이 어떤 특정 방언에 나타난다고 해서 그 방언의 배경을 가지

10) 老乞大諺解書에 나타난 음운 현상에서 그 방언적 배경을 밝히는 문제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첫째, 비록 구개음화 현상, 日母字 표기나 일부 韻母 표기 등 주목할만한 예가 보이고 있으나 北京語 音韻史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없는 字는 여전히 극소수여서 이를 근거로 北京官話 이외의 다른 方言의 배경을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어휘나 語法 현상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현대방언에 나타나는 현상을 근거로 과거의 문헌에 나타난 漢語의 방언적 배경을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즉 현대어에 나타나는 현상이 해당 문헌이 편찬되던 시기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논의된 老乞大諺解書에 나타난 음운 현상은 18세기에 나타난 현상으로 비교적 현대에 가깝고 또한 18세기 山東의 각 下位方言의 상황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거의 全無하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대방언자료를 이용하였다.

11) 《老乞大》의 판본들에 나타난 어휘의 일반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王霞(2002) 참고.

고 있다고 확인하기 어렵고 각 어휘의 역사를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방언 배경 규명을 위하여 《老乞大》의 刊本에 나타난 어휘와 특정 방언의 어휘를 비교하는 경우 이 특정 방언을 반영하는 同時代의 문헌과 현대의 방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전의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특정 방언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老乞大》 刊本에 나타난 어휘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老乞大》 刊本에 나타난 어휘의 특징으로 주목되는 것은 漢兒言語를 반영하는 어휘들이다. 이 어휘들은 주로 《舊老》에서 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元代漢語의 특징인 漢兒言語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어휘는 다음과 같다.<sup>12)</sup>

- |             |                                                                     |
|-------------|---------------------------------------------------------------------|
| ① 지시대명사     | → 兀的, 兀那 這的 那的 阿的                                                   |
| ② 명사의 복수집미사 | → 每                                                                 |
| ③ 문장종결의 助詞  | → 有                                                                 |
| ④ 後置詞       | → 行, 呵, 根底, 上頭                                                      |
| ⑤ 기타 어휘     | → 日頭, 乖, 歹, 伴當, 戰張, 帖落, 軀口, 達達, 定害, 粉壁, 壁, 壁廂, 拂綽, 粧孤, 溷踐, 合口, 者, 喂 |

漢兒言語는 기본적으로 北方方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早期의 《老乞大》 刊本에 나타나는 이러한 어휘적 특징은 元代의 北方漢語를 반영한다고 하는 하나의 표지가 될 수 있다. 《老新》, 《重老》 등 後期刊本에서는 이 어휘들이 대부분 다른 표현으로 대체되는데 대체된 어휘 역시 기본적으로는 官話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만 北方方言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이다.

12) 漢兒言語를 반영하는 어휘에 대해서는 太田辰夫(1991), 梁伍鎮(2002), 王霞(2002), 정광(2004) 등 참고. 각 연구 성과에서 제시한 漢兒言語를 반영하는 어휘는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닌데 비교적 공통적으로 지목한 어휘들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老乞大》刊本들은 山東 지역 방언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老乞大》의 刊本에 나타난 어휘들은 山東方言을 반영하는 문헌에서나 現代의 山東方言에서도 출현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sup>13)</sup> 劉慧(2002)는 《老乞大》刊本에 나타난 어휘와 山東方言의 관계에 대하여 주목할만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러한 어휘들은 山東方言을 반영하는 문헌 자료와 現代山東方言에서 출현하는 양상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 ① 《老諺》에서는 나타나고 《老新》, 《重老》에서는 해당하는 다른 어휘나 표현으로 바뀌었으나 現代山東方言에서는 나타나는 어휘  
→ 夜來, 好生, 頭口, 中(맞다), 眞個, 一雲兒, 旋, 得濟, 家去, 後響, 年時
- ② 《老諺》에서는 나타나고 《老新》, 《重老》에서는 의미상 부합하지 않는 다른 어휘나 표현으로 바뀌었으나 現代山東方言에서는 나타나는 어휘  
→ 迭不得, 道(간주하다), 該着, 便
- ③ 《老諺》에서는 나타나고 《老新》, 《重老》에서는 다른 표현방식으로 바뀌며 清代의 山東方言을 반영하는 자료에서도 나타나지만 現代山東方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어휘  
→ 着實, 怎的, 不爭, 一發, 管待, 端的, 落後, 怎生, 下飯, 過賣, 委實, 整治

위에서 제시한 어휘들은 早期 《老乞大》刊本에서 주로 나타나고 《老新》이나 《重老》와 같은 後期刊本에서는 대부분 나타나지 않거나 다른 어휘나 표현으로 대체되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山東方言의 특색이 이후의 刊本에서 퇴색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질적인 방언적 요소가 배제된 18세기 北方漢語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劉慧(2002)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통해 《翻老》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漢

13) 이와 관련된 문제는 劉慧(2002)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劉慧(2002)에서는 早期의 《老乞大》刊本에 나타난 “來 着 得”의 특수 용법도 山東方言의 반영으로 보았으나 본고에서는 近代漢語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라고 간주한다.

語文을 반영하는 《老諺》은 어휘적 측면에서 분명히 山東方言 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으나 《老新》과 《重老》는 非山東方言 적인 성분으로 편찬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어휘적 측면에서 《翻老》, 《老諺》이 山東方言 적인 성분을 반영하고 《老新》, 《重老》는 非山東方言 적인 성분을 반영한다기 보다는 山東方言 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翻老》, 《老諺》이 이후의 刊本에서 改修를 거치면서 책이 반영하는 漢語의 전체적인 모습에 부합하지 않는 요소를 수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14)</sup>

王霞(2002: 133-139)에서는 《老乞大》가 元明清 시기의 漢語 중 北方口語의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언어의 內外的 원인으로 인한 《老乞大》 어휘의 변화를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를 기초로 본고와 관련이 있는 변화 유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중국어에 침투했던 몽고어 어휘와 알타이언어 계통의 영향을 받은 “漢兒言語” 중에서 중국어 언어 습관에 맞지 않는 어휘는 도태되었다. 《老乞大》 早期刊本에 나타난 元代漢語 를 반영하는 어휘는 다음과 같다.

A. 元代 특유의 地名과 制度를 반영하는 어휘

- 1) 地名 → 大都, 東京, 直東, 直南, 直南府, 順承門
- 2) 貨幣名 → 中統鈔, 料鈔, 擇鈔
- 3) 政治制度 및 法令 → 粉壁, 身丘口, 逃身丘, 關店, 漢兒, 漢兒言語

B. 알타이언어의 漢語에 대한 영향을 반영하는 어휘

- 1) 蒙古語借用語  
→ 歹, 歹人, 帖落, 胡洞, 搭胡, 搭搭五兒, 兀那, 兀的, 這的, 那的
- 2) 漢兒言語 를 반영하는 어휘  
→ 壁, 壁廂, 拂綽, 粧孤, 達達, 定害, 戰張, 溷踐, 合口, 曳刺馬,

14) 주목할만한 또 하나의 사실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老乞大》의 刊本을 통해서 보면 音韻 方面에서는 山東方言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되는 현상이 後期刊本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반해 어휘 方面에서는 오히려 早期刊本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音韻과 어휘 현상 사이에 왜 이처럼 방언의 반영 양상이 다른가하는 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烟薰馬, 乖驕馬, 日頭, 乖, 郎中

② 通用語가 方言을 대신했다.<sup>15)</sup>

→ “俺 > 我”, “恁 > 你”, “年時 > 去年/舊年”, “夜來 > 昨日/昨兒  
箇”, “頭口 > 牲口”, “棚 > 回”

③ 어휘의 구어화가 두드러졌다.

→ “行 > 走”, “理會/省 > 知道/懂”, “背念 > 背”, “讀 > 念”, “文書 > 書”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어휘의 측면에서도 北方漢語를 반영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北方方言의 하위방언 중 山東方言, 北京方言 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명확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老乞大》刊本이 반영하는 방언 배경 연구에 있어 이들 지역方言의 어휘와 그 변화 과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3. 語法

《老乞大》에는 다양한 語法 현상과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문헌들에서 語法에 반영된 방언적인 것과 관련된 요소를 고찰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早期刊本에서 西北方言과 유사한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舊老》, 《翻老》 등에서는 後置詞와 어순에서 다음과 같은 예가 나타난다.

15) 王霞(2002: 138)에서는 이 유형에서 제시한 예들은 “昨兒箇”를 제외하고는 모두 後期刊本에서 通用語로 方言語를 대체한 것이라고 한다. “昨兒箇”는 清代 北京地區의 方言語로 北京을 중심으로 하는 北方地區에서만 통용되었으며 普通話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이외에 다른 어휘들은 어떤 방언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梁伍鎮(2000: 175)에서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舊老》에 나타난 “兀那, 兀的, 阿的” 등 指示詞는 元代北京語에서야 발견할 수 있으며 출현하는 어휘를 통해서 볼 때 《舊老》가 반영하는 것은 元代北京語라고 할 수 있다고 결론에서 언급하고 있다.

## ① 後置詞

- (1) 每日清早晨起來, 到學裏, 師傅行受了生文書. (《舊老》1b-2)  
 → 每日清早晨起來, 到學裏, 師傅上受了文書. (《翻老》上2b-8)  
 → 每日清早晨起來, 師傅根前受了書. (《老新》1b-4)  
 → 每日清早晨起來, 師傅根前受了書. (《重老》上2b-6)
- (2) 俺一等不慣的人根底, 多有過瞞有. (《舊老》37b-4)  
 → 我一等不慣的人根前, 多有欺瞞. (《翻老》下65a-2)  
 → 我們却不慣欺騙人. (《老新》43b-2)  
 → 似我們不慣的根前, 多有欺瞞. (《重老》下60b-7)

## ② 어순

- (3) 底似的漢兒言語說不得的上頭, 不敢言語. (《舊老》15a-1)  
 → 他漢兒言語說不得的, 因此上不敢說話. (《翻老》上51b-7)  
 → 他不懂漢人說的官話, 故此不敢說話. (《老新》17a-3)  
 → 他不懂中國的話, 故此不能說話. (《重老》上47b-2)
- (4) 爲甚麼這般的歹人有? (《舊老》8a-5)  
 → 爲甚麼有這般的歹人? (《翻老》上26b-7)  
 → 爲甚麼有歹人呢? (《老新》9a-4)  
 → 爲甚麼有歹人? (《重老》上24a-4)
- (5) 俺買呵, 買一兩箇, 自穿的不是 (《舊老》36a-5)  
 → 我買時, 不是買自穿的 (《翻老》下59b-9)  
 → 我買去, 不是自家穿的 (《老新》41b-9)  
 → 我買去, 不是自家穿的 (《重老》下56a-3)
- (6) 過的義州, 漢兒田地裏來, 都是漢兒言語. (《舊老》2a-7)  
 → 過的義州, 漢兒地面來, 都是漢兒言語. (《翻老》上5b-3)  
 → 過了義州, 到了中國地方, 都是官話. (《老新》2b-1)  
 → 過了義州, 到了中國地方, 都是官話. (《重老》上5a-4)
- (7) 你底似的休早行, 俺聽得前頭路澁有. (《舊老》8a-4)  
 → 你十分休要早行, 我聽得前頭路澁. (《翻老》上26b-5)  
 → 你們不要十分早行, 我聽得前頭路上甚惹有歹人. (《老新》9a-3)  
 → 你們不要十分早行, 我聽得前頭路澁有歹人. (《重老》上24a-2)

위에서 제시된 後置詞와 어순의 예는 알타이언어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는데 李泰洙(2003)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西北方言에서도 이와 같은 예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西北方言에서 보이는 이와 유사한 語法 현상은 이곳에 다수 거주하는 알타이계 민족 언어의 영향으로 보이며 마찬가지로 《老乞大》의 早期刊本에 나타난 이러한 현상들도 특정 방언을 반영한다기보다는 漢語에 대한 알타이언어 영향의 결과이다. 이러한 사실은 시기적으로 元代나 元대에 가까운 시기에 간행된 《舊老》와 《翻老》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며 이후의 刊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 특정 방언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語法 현상은 찾기 어려운데, 현재 단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도 찾아보기 어렵고 《老乞大》에 어떤 특정 語法 현상이 출현했다고 하더라도 이 현상이 특정 방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이상 특정 방언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문헌에 있어 음운과 어휘적 요소에 비해서 語法 현상에서 반영된 방언적인 특색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해가 된다. 《老乞大》에 나타난 語法 현상이 반영하는 방언 배경의 문제는 이 문헌과 관련된 연구에서 공백 상태로 남아 있어 이후 연구에서 심도 깊은 고찰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III. 《老乞大》에 나타난 漢語의 성격

각 문헌에 나타난 언어를 연구할 때 그 언어가 기초하는 방언 배경 문제는 그 문헌이 반영하고 있는 언어 현상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선행된 후에야 비로소 고찰이 가능하다. 그러나 《老乞大》가 반영하고 있는 漢語의 성격을 파악할 때 방언적인 요소만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미흡하며 다른 여러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老乞大》가 반영하는 漢語의 문제에 대하여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漢兒言語

《老乞大》의 早期刊本에 나타나는 漢語의 성격 중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漢兒言語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太田辰夫(1991)에서는 《翻老》와 漢語文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老諺》에서 특히 語法 부분은 元代 漢語와 비슷한 점이 많으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清代의 北京語와도 근접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이질적인 요소들이 섞여 있는 다소는 이상한 漢語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처럼 주로 語法에 나타난 元代漢語적인 특성을 “漢兒言語”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는 또한 《翻老》, 《老諺》에 나타난 漢語는 《元朝秘史》나 다른 蒙古語直譯體 문헌과 相通하는 점이 있고 金代의 漢兒言語와도 관련된 것 같다고 언급하고 있다.<sup>16)</sup> 이러한

16) 본고에서 참고 자료로 사용하는 《元朝秘史》는 明初에 漢譯된 문헌을 말하는 것으로 이 문헌의 書名은 사실상 《元秘史》이고 《元朝秘史》라는 명칭은 淸道光 28年(1848) 이후에 붙여진 것이다. 이 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다. 첫째 본래 위구르체 몽고문자로 쓰여진 이 秘史의 原名은 漢字音譯으로 《忙豁侖 紐察 脫察安》인데 이는 “蒙古的 秘史 總綱”이라는 의미로 이 책의 漢譯 書名은 《元朝秘史》가 아닌 《蒙古秘錄》 또는 《蒙古秘史》로 하는 것이 비교적 타당하다. 왜냐하면 譚新生·倪潔(2004: 196)에 따르면 國號를 元朝로 바꾼 것은 世祖 시기인 1271년이어서 이 秘史의 原本이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1228년에서 1264년 사이에는 “元”이라는 國號가 존재하지 않았고 原文 어디에도 “元” 혹은 “元朝”라는 명칭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1975年 中文出版社에서 간행된 《元朝秘史三種》影印本에 붙어 있는 張興唐의 解題에도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줄고(2003b: 541), 줄고(2005: 660), 줄고(2006: 221)에서는 “元代에는 많은 蒙漢 對譯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元朝秘史》의 편찬이 대표적인 것이었다”라고 언급하면서 《元朝秘史》를 元代의 문헌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하는 《元朝秘史》漢譯本은 明初의 것이고 元代에 편찬된 漢譯本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언급은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본고를 통해 이 언급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둘째 지금 우리가 참고 자료로 삼고 있는 《元朝秘史》는 明初에 漢譯된 것이고 元代에 漢譯된 것은 찾을 수 없는데 이를 과연 元代漢語를 반영하는 자료로 간주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內藤虎次郎(1949: 331)에서는 原本은 위구르문자로 되어 있는데 그 존재는 현재 알 수 없고 일부에서 元代에 이미 漢字로 音譯을 달고 그 譯文도 붙인 문헌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전에 元

언급은 《舊老》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한 것인데 《舊老》는 어느 刊本보다도 元代漢語적인 특성과 漢兒言語를 잘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舊老》, 《翻老》에는 아래 예문과 같이 漢語文 중에서 “漢兒言語”이라는 표현이 출현하고 있다.

- (8) 低是高麗人, 却怎麼 漢兒言語 說的好有? (《舊老》1a-9)  
 → 你是高麗人, 却怎麼 漢兒言語 說的好? (《翻老》上2a-6)  
 → 你却是朝鮮人, 怎麼能說我們的 官話呢? (《老新》1a-10)  
 → 你却是朝鮮人, 怎麼能說我們的 官話? (《重老》上2a-5)
- (9) 過的義州, 漢兒田地裏來, 都是漢兒言語. (《舊老》2a-7)  
 → 過的義州, 漢兒地面來, 都是漢兒言語. (《翻老》上5b-3)  
 → 過了義州, 到了中國地方, 都是官話. (《老新》2b-1)  
 → 過了義州, 到了中國地方, 都是官話. (《重老》上5a-4)

위의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舊老》, 《翻老》에는 “漢兒言語”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老新》, 《重老》 등 後期刊本에서는 “官話”라는 표현으로 대체되고 있다.<sup>17)</sup> 흥미로운 사실은 (8)의 예에 바로 漢兒言語의

代의 漢譯本이 있어 明初의 漢譯本이 이를 참고했는지 불확실하지만 본고에서는 明初 漢譯本 《元朝秘史》에 나타난 漢譯文도 元代漢語를 반영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왜냐하면 明初의 漢譯本이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洪武年間은 여전히 元代漢語의 영향이 남아 있는 시기였고 《元朝秘史》의 漢譯은 元代에 행해졌던 蒙漢對譯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總譯과 傍譯에 나타난 漢語도 元代漢語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또 한편으로는 蒙文直譯體의 성격을 가진 吏文이 왜 朝鮮 初中期까지 事大文書에 쓰였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결론적으로 말해 본고에서는 明初에 漢譯된 이 문헌을 《元朝秘史》라는 書名으로 元代漢語를 반영하는 자료로 간주하도록 한다.

- 17) 太田辰夫(1991: 181-207)에서는 “漢兒言語” 및 “漢兒”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과 “漢兒言語”의 형성 과정에 대해 상세하고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는데 “漢兒言語”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에 따르면 “漢兒言語”에서의 “漢兒”라는 어휘는 漢代까지로 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北朝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전통적인 의미에서 “漢兒”라는 명칭은 中國 北方의 漢人 또는 漢化된 北方民族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인데, 《舊老》, 《翻老》에서 “목적어 +술어”의 어순과 語末助詞 “有”가 나타나고 있고 이후의 刊本에서 이러한 통사적 표현 방식은 다른 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다. 정광(2004: 10)에 의하면 契丹, 女眞, 몽골족의 지배하에 있던 北方의 漢語는 교착적인 이들 언어의 영향을 받아서 점차 고유의 고립적인 문법구조가 변질되고 교착적 문법요소가 가미된 독특한 漢語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처럼 형성된 北方의 漢語를 “漢兒言語”라고 한다는 것이다. 漢兒言語는 北朝 시기부터 이미 형성되기 시작하여 遼, 金, 元을 거치며 元代漢語에서 정점을 이루게 되고 中國 北方의 공통어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漢兒言語의 특징은 주로 어휘와 語法 방면에서 나타나는데 어휘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언급했으므로 《老乞大》의 早期刊本에 나타난 語法상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을 지칭하며 “吳兒”는 江南의 漢人을 지칭한다고 한다 宋 및 遼 金 시기에 이르게 되면 “吳兒”라는 명칭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고 “漢兒”는 여전히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며 元代에도 이러한 상황은 이어진다. 따라서 “漢兒言語”란 中國 北方의 漢人 또는 漢化된 北方民族이 사용하는 言語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文語와 口語의 공존이 나타났는데, 지배층에서 文語의 지위는 매우 확고하였고 지배층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였다. 北朝 이후 북방민족이 정권을 잡는 경우에는 文語에 대한 의식이 자유로워지고 지배층도 口語를 말하게 되면서 문헌에 기록되기도 하였는데, 이 시기 北方에서 행해지던 口語가 漢兒言語의 최초 형태로 보인다. 唐代 이후 五代, 宋代에는 口語의 지위는 높아졌으나 漢民族 전통의 문명 생활에 기반을 둔 이들 정권에서는 口語의 지위가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 마침 遼 金 元 등 북방민족 정권이 들어서면서 口語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口語 다시 말해 漢兒言語는 북방민족 정권하에서는 북방민족 및 그 통치하의 漢人 사이에서 정식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형성된 漢兒言語는 북방민족 언어의 영향이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된 언어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며, 이들 언어적 요소가 섞여 들어간 漢語였음을 알 수 있다. 정광(2004: 431-434)에서도 元代 北京語는 遼, 金 이후 북방민족의 언어 특히 몽고어가 많이 혼효된 일종의 크레올이었으며, 漢兒言語는 이처럼 민족이 융합된 상황 아래에서 漢兒들이 공통어로 사용한 언어 즉 중국 북방민족의 공통어였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漢兒言語는 明代부터 소실되기 시작되었고 이를 “官話”가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老乞大》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

## ① 어순

- 1) 목적어+동사
- 2) 목적어+有/沒有
- 3) 목적어+不是
- 4) 목적어+來/去
- 5) 부사가 피수식어로부터 떨어져 있는 현상

## ② 後置詞

→ 行, 呵, 根底, 上頭, (上, 時, 裏)

## ③ 語末助詞

→ 有

漢兒言語는 《舊老》, 《翻老》 등 《老乞大》 早期刊本の 성격을 특징짓는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漢語에 대한 蒙古語의 영향이 사라진 《老新》, 《重老》 등 後期刊本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清代 역시 알타이언어 계열의 언어를 가진 滿洲族 정권이었던 점에서 다소 의문이 가는데, 清代漢語의 성격은 漢語와 알타이언어의 접촉에 의해 형성된 것이기 보다는 피지배층인 漢族이 당시 漢語의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해볼 수 있다.<sup>18)</sup> 따라서 漢兒言語는 모든 《老乞大》 刊本の 성격을 특징짓는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18세기 이후의 刊本은 北方漢語를 반영하나 이질적인 언어 요

18) 이 문제와 관련하여 林燾(1987)에서는 주목할만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즉 北方方言의 핵심 지구인 北京官話區에서는 明朝 270여년을 제외하고는 遼代부터 清代까지 줄곧 알타이언어를 사용하는 북방민족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北京官話의 형성과정에서 알타이언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영향이 그다지 컸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통치자들의 꺾박 때문에 漢族들이 떠도는 과정에서 상이한 방언들이 접촉하게 되고 이러한 요인이 오히려 北京官話의 형성에 더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견해는 18세기 刊本인 《老新》, 《老新諺》, 《重老》 등이 滿洲族 지배하의 清代에 간행되었으나 알타이언어의 영향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일리가 있다. 그러나 元代의 漢兒言語와 같이 다른 언어의 영향에 의해 漢語의 구조가 전체적으로 변화를 입은 사례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전적으로 타당한 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의 영향이 사라진 近代漢語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2. 北方方言

기존의 연구에서는 《老乞大》와 그 諺解書가 일반적으로 北方漢語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왔다. 실제로 漢語본인 《舊老》는 물론 최초의 老乞大諺解書인 《翻老》로부터 최후의 老乞大諺解書인 《重老》에 이르기까지 이 문헌들에 나타난 어휘, 語法과 함께 방언적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음운 방면에서 반영하는 漢語의 전체적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 기반이 되는 方言이 北方方言이라고 단언하여도 무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II절에서는 주로 《老乞大》에 반영된 漢語의 모습에서 그 기반이 되는 方言의 배경을 살펴보았는데, 본 부분에서는 언어외적인 측면에서 그 반영하는 方言의 기반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본고에서 《老乞大》가 반영하는 漢語의 지역적 기초가 되는 것이 北方方言이라고 생각하는 언어외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老乞大》 漢語文의 내용 중에 출현하는 地名과 여행 경로가 북방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老乞大》의 내용 중에는 地名이 다수 출현하고 있는데 “義州, 遼陽, 夏店, 北京(大都), 涿州, 高唐, 東昌, 直沽, 蘇州, 湖州, 杭州, 易州, 定州” 등의 地名이 나타나고 있다. 이 중 北方의 지명인 “義州, 遼陽, 夏店, 北京(大都), 涿州, 高唐, 東昌, 直沽” 등이 《老乞大》의 내용 중 실제로 旅程에 포함되는 地名이고 “蘇州, 湖州, 杭州, 易州, 定州” 등은 織物 등에 붙는 명칭으로 旅程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sup>19)</sup> 실제로 朝鮮時代に 使臣이 다니던 경로나 公貿易의 경로도 義州를 통해 遼東과

19) 太田辰夫(1991)에서는 《老乞大》, 《朴通事》가 반영하는 것이 北京 또는 華北의 方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들 문헌에 나타난 旅程을 나타내는 地名도 하나의 근거가 된다. 그는 이들 문헌에 나타난 이러한 地名을 통해볼 때 당시 交易을 위해 華北 지역을 여행하던 朝鮮人들이 다니던 경로의 하한선이 山東 北部였지 黃河 以南까지 다닌 것 같지는 않다고 하고 있다.

山海關을 통하든지 또는 山東 北部를 통해 北京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 外交나 交易의 주요 경로가 北方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20)</sup>

둘째, 《老乞大》와 관련된 기록에는 주로 북방지역에서 漢語를 質正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崔世珍은 《翻老》와 《翻譯朴通事》 등의 漢學書를 편찬하면서 당시 실제로 遼東이나 山東 등 北方 지역을 다니면서 조사하였다고 하고 朝鮮初期 이후 譯學者나 譯官들이 왕래하던 곳이 주로 北方 지역이었다.<sup>21)</sup> 또한 《老新》 역시 序에 質正地(燕館)가 나타나 있어 이 문헌이 실제로 北方 지역에서 質正을 통해 改修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22)</sup>

20) 박정주 옮김(2003: 16)에서는 朝鮮의 사신들이 淸의 北京까지 간 경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경로는 “서울~평양~의주~만주 봉황성~연산관~요동~심양~광녕~사하~산해관~통주~북경”이고 인원은 사신 34인에 수행원을 합쳐 200~300명이었으며 기간은 보통 5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또한 膠東半島 北部 登州에서 山東 北部를 거쳐 가는 경로도 있었다.

21) 姜信沆(1978: 47-52)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司譯院 및 承文院에서 중국어 교육을 실시하면서도 항상 中國本土語 과의 비교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꾸준히 漢語文과 漢語音에 대한 質正을 시도하였는데, 그 시초는 世宗 16年 봄에 李邊과 金何를 遼東에 파견하여 《直解小學》에 관하여 질문할 때부터라고 한다. 이 이후에도 譯官이나 譯學者들이 꾸준히 중국을 왕래하였고 우리나라에 온 中國使臣에게도 質正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朝鮮初期 이후 譯學者나 譯官들이 주로 왕래하던 곳이 주로 北方 지역이라는 사실은 틀림없으나 이들이 제보자로 삼은 中國인들이 모두 北方人인가하는 점은 확인할 수 없어 제보자의 방언 배경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단계에서 제보자의 방언적 배경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元代 이후 이미 정치 문화의 중심이 北京을 중심으로 하는 北方 지역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朝鮮初期 이후 譯學者나 譯官들이 청취하고 익히는 대상이 되었던 것은 당시 정권의 공통어가 된 北方漢語였음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姜信沆(1978), 정광(2004) 참고.

22) “……時譯士邊憲在行, 以善華語名 賤臣請專屬於憲, 及至燕館 逐條改證 別其同異, 務令適乎時便於俗……” (《老新》序) 정승혜(1998: 152)에서는 “燕館”이 會同館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鄭光(2002: 158)에서는 당시의 燕京 지금의 北京에 있던 朝鮮使行들의 숙소인 玉河館을 지칭한다고 한다. 祁慶富(2004: 62)에 따르면 北京에서 朝鮮使團을 접대하던 使館은 明代에 시작되었고 永樂初年에 朝貢使臣을 전문적으로 접대하는 숙소를 설치하여 이를 會同館이라 하였으며 이를 이후에 또한 玉河館이라 칭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미루어볼 때 會同館과 玉河館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명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燕館”은 당시 명칭이 무엇이든 燕京에 있던 사신들의 숙소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최초의 刊本인 《舊老》는 당시 中國 北方의 공통어 즉 漢兒言語를 반영하는 元代漢語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후의 《老乞大》 및 그 諺解書들에서는 漢語文에서 《舊老》를 기초로, 漢語音에서는 15세기 이후의 北方漢語音을 반영하는 《翻老》를 기초로 改修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언어적인 측면이나 언어외적인 측면에서 볼 때 《老乞大》가 北方漢語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로 보인다. 다만 北方漢語의 어느 下位方言을 반영하는지 또한 元代 이후 中國 北方의 共通語로 형성되기 시작한 당시의 漢語를 《老乞大》가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는지가 현재 단계에서는 보다 더 심도 깊게 고찰해야할 과제로 보인다.

### 3. 近代漢語

《老乞大》가 近代漢語를 반영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자가 동의하는 것인데 본 부분에서는 이 문헌이 반영하는 시대적인 배경이 과연 近代 시기의 漢語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한다.

《老乞大》와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 최초의 《老乞大》가 어느 시기에 간행되었는지 추측해 볼 수 있다.<sup>23)</sup> 《老乞大》와 관련된 기록이 우리나라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世宗實錄》에서인데 아래의 기록은 世宗 5년에 禮曹에서 《老乞大》, 《朴通事》를 印出하기로 하였고 世宗 16년에 鑄字所에서 간행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 이 문헌의 原本이 朝鮮初期 이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禮曹據司譯院牒呈啓, 老乞大朴通事, 前後漢, 直解孝經等書, 緣無板本, 讀者

23) 《老乞大》 原本의 간행과 관련된 직접적인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대략 간행 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은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기록과 설명에 대해서는 李敦柱(1989), 양오진(1998), 梁伍鎭(2000), 鄭光(2002) 등을 참고하였다. 이 중 양오진(1998)은 《舊老》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논의한 것이고, 梁伍鎭(2000)은 1998년 《舊老》가 발견된 후 본문에 나타난 어휘에 기초하여 編纂年代를 추정한 것으로 양오진(1998)을 보충한 것이다.



傳寫誦習, 請令鑄字所印出, 從之 (《世宗實錄》(5年, 1423年))

頒鑄字所印老乞大朴通事, 于承文院司譯院 (《世宗實錄》(16年, 1434年))

아래의 기록들은 早期의 《老乞大》, 《朴通事》 刊本이 元代漢語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언급된 《老乞大》, 《朴通事》 刊本은 崔世珍이 편찬한 《翻老》, 《翻朴》의 原本인 것으로 보인다.

敬見老乞大朴通事曰, 此乃元朝時語也. (《成宗實錄》(11年, 1480年))

兩書皆元朝言語, 其沿舊未改者, 今難曉解 (《老朴集覽》(1517年 이진))

또한 《老乞大》와 그 諺解書의 本文 중에는 다음과 같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는 어휘가 출현한다.

(10) 伴當, 恁從那裏來? 俺從高麗王京來. (《舊老》1a-2)

→ 大哥, 你從那裏來? 我從高麗王京來. (《翻老》上 1a-2)

→ 阿哥, 你打那裏來? 我從朝鮮王京來. (《老新》1a-2)

→ 大哥, 你從那裏來? 我從朝鮮王京來. (《重老》上 1a-2)

(11) 如今那裏去? 俺往大都去. (《舊老》1a-2)

→ 如今那裏去? 我往北京去. (《翻老》上 1a-4)

→ 這回兒那裏去? 我往北京去. (《老新》1a-2)

→ 如今那裏去? 我往北京去. (《重老》上 1a-4)

(10)의 예에서는 《舊老》, 《翻老》에서 “高麗”라는 어휘가 나타나는데 이는 《老乞大》의 原本이 간행된 시기가 高麗時代임을 알려주는 방증이고 이는 (11)의 예에 나타난 “大都”라는 어휘를 통해 뒷받침된다. “高麗”는 18세기 刊本인 《老新》, 《重老》에서는 “朝鮮”으로 바뀌고 “大都”는 이미 《翻老》부터 “北京”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관련 기록들을 통해 《老乞大》의 原本이 13세기말 이후에 간행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sup>24)</sup>

《老乞大》와 그 諺解書에 나타난 漢語文이나 漢語音의 실제 내용은 이 문헌들이 近代漢語를 반영하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老乞大》 중 최초의 刊本인 《舊老》는 元代漢語의 중요한 특성인 漢兒言語적인 특성을 많이 반영하고 있고 元代에 간행된 중국 자료와 비교해 보면 그 유사한 특징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후의 刊本들은 漢語文에서는 《舊老》, 漢語音에서는 《翻老》를 기초로 改修한 것이고 당시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漢語文이 반영하는 시기의 상한선은 13~14세기, 漢語音이 반영하는 시기의 상한선은 14~15세기라고 할 수 있다. 5종의 老乞大諺解書에 나타난 漢語文과 漢語音 표기를 시대에 따른 刊本들에서 비교해 보면, 漢語文에서는 《翻老》, 《老諺》, 《平安》이 한 계열을 이루고 《老新諺》, 《重老》가 한 계열을 이루고 있다<sup>25)</sup> 물론 漢語本인 《舊老》는 漢語文에 있어 이들 諺解書들과는 다른 漢語를 반영하고 있다. 漢語音 표기에서 좌측음은 《翻老》, 《老諺》이 《洪武正韻譯訓》의 俗音 위주로 되어 있고 《平安》, 《老新諺》, 《重老》 등은 《洪武正韻譯訓》의 正音 위주로 되어 있다. 우측음에서는 《翻老》, 《老諺》, 《平安》이 한 계열을 이루고 《老新諺》, 《重老》가 한 계열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 계열안에서도 漢語文의 경우 《老新諺》과 《重老》 사이에 차이가 있고, 우측음에서도 《翻老》와 《老諺》, 《平安》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sup>26)</sup>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 아래 표에서 A는

24) 譚新生·倪潔(2004: 222)에 따르면 明代인 1403년에 “北平”을 “北京”으로 고치면서 이 명칭을 정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明代 이후에는 지금의 北京을 “大都”라고 부른 일이 없는데 譚新生·倪潔(2004: 196)에 따르면 “大都”는 元世祖가 1272년에 “中都”에서 고친 명칭이라고 한다. 따라서 《舊老》에 “大都”라는 명칭이 있는 것은 《老乞大》의 原本이 간행된 시기의 상한선을 13세기말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16세기 이후의 刊本인 《翻老》부터 “北京”이라는 명칭으로 바뀐 것은 당연한 것이다.

25) 《翻老》와 《老諺》은 김현주·정경재(2006)에서 대조한 바와 같이 漢語文에서 완전한 일치를 보이는 것은 아니나 이들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고 하기 어려워 본고에서는 모두 B로 처리하였다.

26) 鄭光(2002: 161-162)에서는 《重老》의 중국어가 당시 중국 북경의 표준어 즉 清代 北京官話(Mandarin)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고, 《重老》는 新釋本

元代漢語, B는 明代漢語, C는 清代漢語를 주로 반영하는 것이다.<sup>27)</sup>

의 漢語가 지나치게 구어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짐작은 文語體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다. 본고는 《重老》의 漢語文이 《老新》의 지나치게 口語적인 상황을 교정한 다소 擬古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重老》의 漢語가 당시의 清代 北京官話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 줄고(1994)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重老》는 時用性を 확보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문화정비사업의 측면에서 편찬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교정에 보다 공을 들이고 격조 있는 漢語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지 당시의 清代 北京官話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 실제 내용에서 《老新》과 《重老》는 漢語文에서 이전의 《老乞大》 刊本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清代漢語를 반영하고 있으며 두 刊本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기는 어렵다.

- 27) 본고에서는 《舊老》가 元代漢語, 《齣老》, 《老諺》 및 《平安》이 明代漢語, 《老新》 및 《老新諺》과 《重老》가 清代漢語를 주로 반영한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처럼 명확하게 어느 시기를 반영한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 이유는 먼저 각 시기마다 《老乞大》와 같은 수준의 생생한 口語를 반영하면서 각 刊本과 대응하는 중국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元 明 淸 등 각 시기 漢語를 반영하는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그 대체적인 특징을 《老乞大》의 각 刊本과 비교할 수 있으나 이를 기초로 각 刊本들이 어떤 시기의 漢語를 반영한다고 정확히 확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老乞大》의 각 刊本에 반영된 漢語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간행된 시기의 漢語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老乞大》의 각 刊本들에는 간행된 시기의 漢語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시기 漢語의 흔적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老乞大》 및 그 諺解書들은 口語를 반영하는 실용적인 會話書이기는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언어 변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 소극적이었고 이전의 刊本을 답습하는 경향을 보여 주는데 그 이유는 이후 刊本이 이전에 간행된 刊本을 기초로 改修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明代에 간행된 《齣老》에도 元代漢語의 특징이 일부 반영되어 있고 《老新諺》, 《重老》에도 明代漢語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平安》은 18세기에 간행된 자료이나 16세기에 간행된 《齣老》와 漢語文 및 漢語音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각 刊本에 나타나는 漢語가 어떤 시기의 것을 반영하는가를 검토할 때는 각 刊本의 문헌적 배경도 고려해야 하는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老乞大》와 그 諺解書의 각 刊本이 반영하는 漢語를 각 시기별로 개략적으로 구분해 본 것이다.

|     |     | 舊老 | 翻老               | 老諺               | 平安               | 老新諺              | 重老               |
|-----|-----|----|------------------|------------------|------------------|------------------|------------------|
| 漢語文 |     | A  | B                | B                | B                | C                | C'               |
| 漢語音 | 좌측음 |    | 俗 <sub>(正)</sub> | 俗 <sub>(正)</sub> | 正 <sub>(俗)</sub> | 正 <sub>(俗)</sub> | 正 <sub>(俗)</sub> |
|     | 우측음 |    | B                | B'               | B'               | C                | C                |

종합적으로 볼 때 14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최초의 《老乞大》刊本인 《舊老》는 元代漢語를 반영하고 있고 이후 刊本에서 改修를 거듭하면서 現代漢語와 유사해져가는 상황을 볼 수 있으며 18세기의 刊本인 《老新》, 《老新諺》, 《重老》에서는 漢語가 이미 蒙古語의 영향에서 벗어나 그 자체의 변화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老乞大》 및 그 諺解書가 近代漢語를 반영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는 이들 문헌이 近代漢語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近代 시기의 어떤 성격의 漢語를 반영하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早期의 《老乞大》刊本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漢兒言語이고 後期의 刊本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질적인 언어 요소들의 영향이 사라지고 漢語 고유의 모습으로 돌아온 近代時期의 漢語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 4. 口語

《老乞大》는 일반적으로 口語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왔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舊老》가 반영하고 있는 漢語가 口語로써는 실제로 사용된 일이 없는 蒙文直譯體라고 주장하기도 한다.<sup>28)</sup>

28) 정광(2004: 14) 참고. 太田辰夫(1991: 187-188)에 따르면 中國에서는 전통적으로 실제 언어에 있어 文語와 口語의 공존이 있었고 이러한 공존은 일반적으로 後漢 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口語를 반영하는 문헌들은 주로 宋代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여기에서 蒙文直譯體는 元代에 蒙漢對譯 과정 중 蒙古語를 漢語로 번역하거나 漢語 문장을 蒙古語로 번

文語와 口語는 경계가 확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할 수 있는데, 太田辰夫(1991)에서는 漢語의 이 두 가지 측면 중에서 文語도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된 언어로 교양 있는 상류계층의 사람들은 文語에 가깝게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 《老乞大》에 반영된 漢語도 의사소통에는 사용된 언어이나 당시의 口語가 아닌 文語일 가능성은 없는지 의심을 가져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老乞大》나 그 諺解書에 나타난 漢語文과 漢語音은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당시의 口語를 반영한 것이고 특히 老乞大諺解書에 나타난 우측음은 음성 실현 위주의 전사로서 현실적인 漢語音을 표음 문자인 한글로 기록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문헌에 반영된 언어 자료의 연구에 있어 이러한 견해는 위험천만한 것이지만 본고에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근거가 있다.

첫째, 朝鮮時代를 통해 譯官이나 譯學者들이 중국 현지를 왕래하면서 꾸준히 漢語와 漢語音을 청취하고 質正했으며 여러 기록과 반영하는 漢語를 통해 볼 때 《舊老》, 《翻老》 및 《老新》, 《老新諺》 등의 문헌은 중국측 제보자들에게 漢語와 漢語音을 質正함에 의해 편찬 또는 改修된 것이 확실하다는 점이다. 崔世珍은 《翻老》와 《翻譯朴通事》를 편찬하면서 正俗音 표기를 행하였고 이러한 표기 방식은 이후의 《老乞大》, 《朴通事》의 諺解書들을 통해 이어졌으며 崔世珍은 더 나아가 漢語音에 대해 正音, 俗音, 今俗音의 구분을 두어 正音은 《四聲通攷》의 音, 俗音은 15세기 北方音, 今俗音은 崔世珍이 관찰한 16세기 北方音을 기준으로 삼았

역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특수한 文體를 말하는데, 일부 학자는 이 문체가 口語로 사용된 적이 없는 문서상의 언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元代 행정관청에서 사용된 文語인 吏文과 相通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太田辰夫(1991)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漢人도 이해할 수 있고 漢化 된 蒙古人도 이해할 수 있는 중간 형태의 直譯體로 된 口語文書도 있다고 한다. 蒙文直譯體를 반영하는 중국 자료로는 《孝經直解》, 《白話聖旨》, 《元典章》 등이 있는데 이들 자료에 나타난 일부 언어적 특징이 《舊老》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舊老》에 반영된 漢語를 蒙文直譯體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는데 이처럼 《翻老》와 《翻譯朴通事》는 당시 실제 조사한 漢語를 반영하고 있다.<sup>29)</sup> 또한 《老新》의 序에는 質正者(洪啓禧, 邊憲)와 質正地(燕館)가 나타나 있어 이 문헌이 편찬 당시 실제로 質正을 통해 改修되었음을 알 수 있다. 《老諺》, 《平安》, 《重老》처럼 이전의 문헌을 답습한 刊本들도 있으나 이들 문헌 역시 時用性에서는 다소 떨어지지만 口語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둘째, 각 刊本에 반영된 漢語를 검토해보면 口語를 반영한다고 보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언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14세기경 최초의 《老乞大》 刊本이 성립된 이후 《老乞大》 및 그 諺解書는 改修를 거듭하게 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전의 刊本이 당시의 漢語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漢語 교재로서는 필수적인 조건인 時用性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만 《舊老》는 일부 학자들이 元代의 文語인 蒙文直譯體를 반영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sup>30)</sup> 《翻老》는 이미 상세히 언급한 바와 같이 漢語文과 漢語音을 통하여 15~16세기의 漢語를 반영하고 있고 《老諺》, 《平安》은 문헌적 성격상 《翻老》를 답습하고 있으나 《老新》, 《老新諺》, 《重老》에서는 漢語文에서 이미 現代漢語에 근접한 近代白話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고 漢語音에서는 見母系의 구개음화, 日母字 변화, 撮口呼에서의 변화(i ㅕ > y), 山攝系 韻母의 변화 등을 반영하고 있어 17세기 이후의 北方漢語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임은 의

29) 이와 관련된 문제는 졸고(2004) 참고.

30) 일부 학자들은 蒙文直譯體가 口語로써는 실제로 사용된 일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太田辰夫(1991)에서는 文語 역시 口語에 기반을 둔 것으로 지식인 계층에서는 실제로 사용된 언어라고 언급하고 있어 蒙文直譯體 역시 文語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당시의 口語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역으로 元代의 口語에 蒙文直譯體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었을 것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다. 《舊老》에는 분명히 蒙文直譯體의 특성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孝經直解》, 《元典章》과 같은 蒙文直譯體를 반영하는 전형적인 문헌에 나타난 漢語와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蒙文直譯體의 특성들이 일부 나타난다는 이유로 《舊老》가 元代의 口語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견해로 보인다.

심할 여지가 없다. 이처럼 漢語文이나 漢語音에서 시대에 따른 언어 변화의 모습이 각 刊本에 생생히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은 보수적인 성격의 文語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셋째, 《老乞大》가 매우 실용적이고 口語가 행해져야 할 상황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老乞大》는 中國으로 私貿易을 하러 가는 고려 상인과 동행한 중국 상인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여행과 거래를 하면서 일어나는 상황별 회화로 구성되어 있고 이와 짝을 이루는 《朴通事》는 中國의 생활이나 文化, 풍속과 관련된 고급 회화로 구성되어 있어 내용 자체가 매우 실용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회화 교재가 文語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太田辰夫(1991: 188)에서는 宋代 이후의 口語를 반영하는 문헌에서 口語는 주로 서술 부분이 아닌 대화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교양 없는 사람이 말하는 부분이나 감정이 격앙된 부분에서 두드러진다고 한다. 따라서 《老乞大》나 《朴通事》와 같은 내용과 용도를 가진 문헌이 口語를 반영한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老乞大》, 《朴通事》는 司譯院에서 漢語 口語를 교육하기 위한 교재로 사용되어 事大文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吏文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와는 구분이 된다.<sup>31)</sup> 다만 《朴通事》는 고급 회화 교재로 어려운 文句나 표현 방식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老乞大》보다는 文語的인 표현이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老乞大》 및 그 諺解書가 정도에 따라

31) 姜信沆(1978: 22-26)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世祖朝부터는 吏文과 漢語가 연결되어 교육에 있어 별개의 것으로 보기 어렵게 되지만 이 두 분야를 교육하기 위한 교재는 구분되었다. 世宗·世祖 때에 吏文을 교육하기 위해서 《吏文謄錄》, 《至正條格》, 《大元通制》 등을 교재로 삼았고 漢語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老乞大》, 《朴通事》, 《直解小學》 등을 교재로 사용하였다. 朝鮮中期 이후 《直解小學》은 《伍倫全備》로 대체되고 《伍倫全備》는 《譯語類解》로 대체되지만 《老乞大》, 《朴通事》는 18세기까지 改修를 거듭하면서 朝鮮時代를 통해 漢語 教材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老乞大》, 《朴通事》는 吏文 敎育과는 관계없는 漢語 口語를 교육하기 위한 교재임을 알 수 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당시의 口語를 반영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제가 되는 《舊老》도 元代의 文語인 蒙文直譯體에 나타나는 언어적인 특징을 일부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元代漢語의 중요한 특징인 漢兒言語의 특징이 나타나있는 것이지 文語적인 성격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IV. 맺음말

본고에서는 《老乞大》 및 그 諺解書의 刊本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 문헌들에 나타난 漢語의 성격에 대한 규명을 시도해 보았다. 먼저 음운, 어휘, 語法 현상에 어떠한 방언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老乞大》 및 그 諺解書가 기초하고 있는 것이 北方方言임이 확실하며 기본적으로는 北京을 중심으로 하는 북방 지역에서 행해진 官話의 성격을 가지나 山東方言의 요소도 일부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老乞大》는 北方方言의 성격 이외에 漢兒言語이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 행하여진 口語이며 시기적으로는 近代漢語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이 중에서도 漢兒言語는 早期 《老乞大》 刊本の 성격을 규정짓는 중요한 특징인데 이는 北方民族의 지배하에 있던 北方 지역의 漢語가 이들 민족 언어의 영향을 받아서 점차 고유의 독립적인 문법 구조가 변질되고 교착적인 문법요소가 가미된 상태로 변하게 된 독특한 성격의 漢語를 의미하고 특히 《舊老》에 이러한 특징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

《老乞大》와 그 諺解書는 비교적 많은 주목을 받아왔으나 이 문헌들이 가진 漢語史 자료로서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 반영하고 있는 漢語의 성격을 규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老乞大》 및 그 諺解書와 같이 독특한 배경을 가진 문헌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선결 과제로 볼 수 있고, 본고는 이 방면에 대한 이전의 연구



성과들의 기초위에서 이 문헌들이 반영한 漢語의 성격에 대하여 초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老乞大》와 그 諺解書가 반영한 漢語의 성격을 규명하는 문제는 이 문헌들과 관련된 연구에 있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고 이후로도 이 연구 과제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여러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參考文獻>

- 姜信沆, 《李朝時代의 譯學政策과 譯學者》(서울: 塔出版社), 1978.
- 김현주·정경재, <翻譯「老乞大」·刪改「老乞大」·「老乞大諺解」의 漢文原文 對照>, 《역학서와 국어사 연구》(과주: 대학사), 2006.
- 박정주 옮김, 《북학의》(서울: 서해문집), 2003.
- 신용권, 《老乞大諺解의 漢語音 研究—18世紀 刊本の 在右字音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愼鏞權, <朝鮮 漢學書에 나타난 漢語 구개음화에 대하여>, 《中國言語研究》 16, 2003a.
- 愼鏞權, <《老乞大》에 나타난 後置詞에 대하여>, 《中國語文學》 42, 2003b.
- 愼鏞權, <《翻譯老乞大》에 나타난 좌측음의 성격에 대하여>, 《中國文學》 42, 2004.
- 愼鏞權, <《老乞大》에 나타난 어순변화에 대하여>, 《中國語文學》 45, 2005.
- 愼鏞權, <《老乞大》에 나타난 漢語 통사 변화의 유형과 원인에 대하여>, 《中國文學》 48, 2006.
- 양오진, <老乞大·朴通事の 漢語文 性格에 대한 研究>, 《한국어학》 8, 1998.

- 梁伍鎮, <초기 漢學書에 보이는 몽고어성분>, 《中語中文學》31, 2002.
- 李敦柱, <「翻譯老乞大·朴通事」의 漢音 上聲 變調에 대하여>, 《주시경학보》3, 1989.
- 鄭光, 《譯學書研究》(서울: J&C), 2002.
- 정광 역주·해제, 《原本노걸대》(과주: 김영사), 2004.
- 정승혜, <老乞大新釋 서문>, 《문헌과 해석》 가을 통권 4호, 1998.
- 康寔鎮, 《「老乞大」「朴通事」研究》(臺北: 臺灣學生書局), 1985.
- 祁慶富, <明清時期北京的朝鮮使館>, 《亞細亞文化研究》8, 2004.
- 寧繼福, 《中原音韻表稿》(吉林文史出版社), 1985.
- 譚新生·倪潔, 《北京通史簡編》(天津: 南開大學出版社), 2004.
- 董同龢, 《漢語音韻學》(臺北: 文史哲出版社), 1968.
- 朴炯春, 《中古知莊章三組聲母在今山東方言中的讀音研究》, 山東大學 博士學位論文, 2001.
- 梁伍鎮, <論元代漢語《老乞大》的語言特點>, 《中國言語研究》10, 2000.
- 王力, 《漢語史稿》(北京: 中華書局), 1980.
- 王霞, 《《老乞大》四版本詞匯研究》, 韓國外大 博士學位論文, 2002.
- 劉堅 編著, 《古代白話文獻選讀》(北京: 商務印書館), 1999.
- 劉慧, 《三種版本《老乞大》詞匯、語法對比研究》, 南京大學 碩士學位論文, 2002.
- 李泰洙, 《《老乞大》四種版本語言研究》(北京: 語文出版社), 2003.
- 林燾, <北京官話溯源>, 《中國語文》第3期, 1987.
- 太田辰夫, 《漢語史通考》(重慶出版社; 日文原版: 1988), 江藍生·白維國 譯, 1991.
- 內藤虎次郎, 《支那史學史》(弘文堂), 1949.
- 遠藤光曉, <「重刊老乞大諺解」牙喉音字齟化的條件·附巴黎的朝鮮資料>, 《開篇》11, 1993.
- 鶴殿倫次, <「華音啓蒙諺解」の漢字音注の特質>, 《愛知縣立大學外國語學部紀要(言語·文學編)》18, 1985.

- 《元朝秘史》(明 洪武年間), (中文出版社, 《元朝秘史三種》), 1975.
- 《舊刊老乞大》(14세기?), (北京: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原本老乞大》), 2002.
- 《翻譯老乞大》(1517 이전), (서울: 亞細亞文化社, 《原本老乞大諺解》), 1980.
- 《老乞大諺解》(1670),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 奎章閣叢書第九.
- 《老乞大諺解》(平安監營重刊本)(1745序), (서울: 弘文閣), 1984.
- 《老乞大新釋》(1761序), 奎章閣所藏本.
- 《老乞大新釋諺解》(1763), 미국 컬럼비아대학 동아도서관 소장본.
- 《重刊老乞大諺解》(1795 이후), 奎章閣所藏本.
- 《中國歷史地圖集(元·明時期)》(北京: 中國地圖出版社), 譚其驤主編, 1982.
- 《漢語方音字匯》(第二版 北京 文字改革出版社, 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 語言學教研室編, 1989.
- 《普通話基礎方言基本詞匯集》(北京: 語文出版社), 陳章太·李行健 主編, 1996.

#### <中文提要>

《老乞大》及其諺解書是高麗時代以來韓國廣泛使用的漢語教科書。早期《老乞大》版本中出現的漢語, 在以後的諸版本中發生了一定程度的變化。不同版本中對應的漢語的差異反映了元代以後漢語的發展情況。因此, 《老乞大》及其諺解書對於漢語史的研究, 有很大的參考價值。本文通過對《老乞大》諸版本的有關內容進行比較研究, 以揭示這些書中反映的漢語的方言基礎, 從而解釋《老乞大》版本中反映的漢語, 對這些書的特點和資料價值做詳細的評價。《老乞大》版本中反映的方言基礎很有可能是跟北京官話、山東方言有關。此外, 《老乞大》所反映的漢語主要特點如下: 漢兒言語; 北方方言; 近代漢語; 口語。其中漢兒言語是早期版本的重要特點。漢兒言語極有可能是語言

接觸的過程中產生的。某一民族征服了其他民族，兩民族各自使用的語言可能在語音、詞匯和語法方面產生一定的相互影響。考慮到元代的社會政治情況，可知元代漢語裏確實發生了一定的變化。因此，《老乞大》所反映的漢兒言語很可能是漢語與蒙古語相接觸的產物。《舊老》、《翻老》兩本裏這些現象比較明顯，《老新》、《重老》兩本裏這種現象則明顯地弱化，這就證明後期刊本時期的漢語已擺脫蒙古語的影響，恢復了原來的狀態。

有學者關注《老乞大》及其諺解書的漢語史上的價值，而前人時賢對這些資料的研究大多側重于語音和語法系統方面，這些研究向我們清楚地展示了這些資料的語言系統，但研究成果還不夠全面。《老乞大》及其諺解書是研究漢語史的重要資料，值得挖掘的內容還很多，希望今后能有更多的學者關注這方面的研究。

주제어: 《老乞大》, 北京官話, 山東方言, 北方方言, 漢兒言語, 近代漢語, 口語

K C I